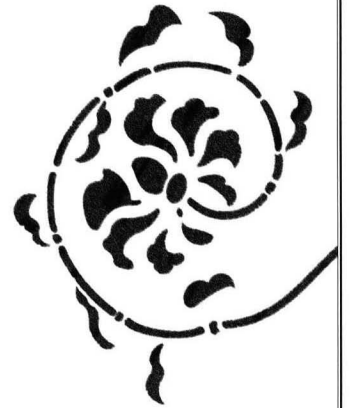


창해에 달 밝으면
진주가 눈물 흘리고



기래완

추석이 목전입니다. 낮에는 아직 늦여름의 열기가 여진처럼 남아 있지만 밤이면 서늘한 가을 기운이 완연합니다. 조만간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와 방울벌레 소리가 가을밤을 재촉하겠지요. '봄에는 여자가 그리움에 사무치고, 가을이면 남자가 슬픔에 잠긴다 [春女思, 秋男悲]' 고 하였던가요? 웬지 쓸쓸해지는 마음은 긴 여름을 덧없이 보내 버렸다는 자탄이겠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일어나 무심히 시집 한 권을 펼쳐 듭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시!

錦瑟無端五十絃 금슬은 까닭 없이 오십 현이나 되어 一絃一柱思華年 한 현 한 기둥마다 젊은 날을 사무치게 하네

莊生曉夢迷蝴蝶 장생의 새벽 꿈속에 호랑나비가 헤매고 望帝春心託杜鵑 망제는 춘심을 두견새에 기탁하였네

滄海月明珠有淚 창해에 달 밝으면 진주가 눈물 흘리고

藍田日暖玉生煙 남전산에 햇볕 따뜻하면 옥에서 연기가 나니

此情可待成追憶 이 정이 어찌 추억이 되기를 기대하겠는가? 只是當時已惘然 다만 그 당시에 이미 절망했던 것을



이상(李商隱: 812~858)의 <금슬錦瑟> 시입니다. 이 시는 당시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시의 하나로 유명합니다. 시의 주제에 대하여 천여 년 동안 많은 주석가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진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시를 살펴봅니다. 금슬은 화려하게 장식된 고대의 현악기입니다. 한나라 태제(秦帝)가 오십 현의 슬瑟을 연주하게 하였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슬퍼서 이를 부숴 버리고 이십오 현으로 바꾸게 했다고 합니다. 기둥柱은 현을 받치는 기러기발입니다. 시인은 금슬의 오십 개나 되는 현 하나 기둥 하나 하나가 젊은 시절의 좋았던 날들을 사무치게 생각나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날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일 뿐입니다.

장생은 장주(莊周), 즉 장자(莊子)입니다. 장자가 어느 날 꿈 속에서 호랑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는데 깨어 보니 다시 장자 자신이었습니다. 장자가 꿈을 꾸다 호랑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호랑나비가 꿈을 꾸다 장자가 된 것인지? 어느 쪽이든 그 꿈 역시 결국은 허망한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지요.

망제는 주나라 말 서촉(西蜀)의 왕이었던 두우(杜宇)를 말합니다.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 비통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넋이 두견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원한에 사무친 두견새는 초봄이면 피를 토하며 슬피 읊니다. 그 토해 낸 피자국마다 붉은 꽃이 피어나는데, 그 꽃이 바로 진달래입니다. 진달래의 한자 이름이 두견화인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견새의 우리말 이름은 접동새이고, 별칭으로 망제흔·촉흔·귀촉도·불여귀·두우·원조·자규 등이 있는데 모두 망제의 전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춘심은 봄날의 뒤숭숭한 마음, 님을 그리 사무치는 마음입니다. 그런 그리움을 슬픈 두견새 소리에 기탁하였으니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정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해는 넓은 바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남해에 교인(蛟人)이 사는데, 물고기처럼 물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인어라고 할까요. 교인이 비단을 짜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방합(蚌蛤)이라는 조개는 진주를 품고 있는데, 달이 차고 기울어짐에

따라 진주가 달과 함께 둥글어졌다 작아졌다 한다고 합니다. 시인은 두 전설을 교묘하게 엮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눈물일까요? 사랑의 아픔?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회한?

남전은 섬서성 남전현에 있는 산 이름인데, 고대로부터 유명한 옥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옥산(玉山)이라고도 부릅니다. 햇살이 밝으면 바위 속의 옥에서 아지랑이 같은 연기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옥은 아름다운 사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난날의 좋은 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 정이 추억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망연자실하였었기 때문에.

이 시에는 많은 고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들이 상징하고 암시하는 것이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난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은 시의 특징입니다. 고사의 빈번한 사용과 주제의 모호성. 이 때문에 이상은은 후세에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시사에서는 그의 시를 열렬히 추종했던 송나라 초의 시파를 '서곤파(西崑派)'라고 부릅니다. 한편 반대자들은 그가 고사를 남용하기를 수달이 잠은 물고기를 줄지어 늘어놓듯 한다는 의미로 그의 시를 '달제어(獺祭魚)'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금슬> 시에 대하여 역대 주석가들은 죽은 아내에 대한 애도의 시라느니, 떠나간 애인을 그리는 실연시라느니, 불우했던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한을 읊은 시라느니, 고대의 악기 금슬을 묘사한 시라느니 등등의 분분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감상하는 이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시의를 짐작해 볼 여지가 그만큼 많은 시라 하겠습니까.

이상은은 자가 의산(義山)이고 호는 옥계생(玉谿生)인데 당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인 듯 그는 누구보다 많은 연애시를 남겼으니, 만당 시단에 유희주의를 수립한 이 거봉의 현란한 시편들은 오늘날까지 그를 숭앙하는 후인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㉔



이 글을 쓴 기래원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 전남연구원, 흥익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泉詩 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